

3세대가족의同居實態와同居意識에 관한研究

A Study on the Residence and Consciousness of Cohabitation of Three Generations Family

林 晚 澤* 朴 京 甲**
Lim, Mann-Taek Park, Kyung-Gap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ulti-generations' cohabitation and housing problems among the families and a matter what housing conditions are necessary for each generations to take over the homelike interchange as maintaining the excessive self-support.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151 men and women over 60 years and older in Mokpo. The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 people owned their own homes, and in many cases that the parents bought the hom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parents have been living with their children's families, since their children got married,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think that cohabitation is natural. In the aspect of living, the families normally eat together but there is a separation in economy and entertainment. There are many renovation and remodeling of a house to adjust the situation of three generations' cohabitation.

About 70% of people experience problems with cohabitation. In particular, many cases involve the "crisscross of the life time" and "the difference of interest" between generations. As a method of cohabitation peaceful, it is most desirable to do everything together. To improve condition of cohabitation peacefully, it is desirable to separately use living room or bedroom from other generations.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three generations' cohabitation are how people control the common hope of happiness and the tendency of separation of living room and how people activate the merits of cohabitation.

I. 序 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모와 자녀부부 및 손자나 손녀가 동거하는 가족은 가치의식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족 형이고, 대다수의 사람이 생애의 어느 시기엔가 그와 같은 가족생활을 경험한다.

3세대 가족의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이론적 실제적인 실마리를 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이 3세대 가족 또는 거기에 준하는 가족 가운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고, 노인의 복지가 가족과의 관계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노인을 둘러싼 가정문제 중에서 다세대 동거와 그들의 주거를 조명한 것으로 주거라는 틀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각각의 세대가 자립을 유지하면서 가정적인 교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택조건·거주조건이 필요한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동거는 경제적·정서적 지원, 신변간호에 높은 기능을 갖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위

* 정회원,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목포과학대 건축과 부교수

협성이나 정서적 갈등이 나타날 역기능을 갖는 생활형태이다.

이들 3세대 사이에서, 「동거는 가족에게, 별거는 노인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기 쉽다」라는 바와 같이 동거에 대한 평가도 다를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3세대 가족이 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주형태의 검토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주택요인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는 3세대 가족의 거주형태와 동거의식을 주거와 거주방식 측면에서 밝히고, 다른 세대와의 동거를 위한 주거와 거주방식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성별에 상관없이 첫째, 60세 이상으로서, 둘째, 3세대 동거, 셋째, 같은 부지내 거주도 동거로 간주하였다.

연구내용은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응답자의 특성, 가족의 특성, 주택의 특성 등에 대하여 밝힌다. 2) 3세대 가족의 동거실태를 3세대 가족이 형성된 경위와 그 이유, 일상에서 가계, 식사, 단란, 가사의 공동과 분리를 고찰하고, 주거의 현상을 밝힌다. 3) 동거관으로서 동거의 장점, 문제점, 원활한 동거방법 등을 밝힌다.

연구방법으로는 목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3세대 가구를 고르게 추출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접에 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3월10일부터 20일까지로 하였으며, 151세대에서 분석에 유효하게 응답해 주었다. 분석방법은 백분율에 의하여 나타낸다.

II. 3세대 家族型의 特性

우리나라 노인들은 기혼자녀와의 동거 희망률

이 상당히 높으며, 동거자녀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 노인들이 지배적이고, 실제 시설주거를 이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다. 그러나 실제 노인 부양 가족들은 거주공간에 대한 갈등 등을 이유로 노인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¹⁾

노인의 동거관은 자녀와의 동거의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노인의 심신쇠약, 동거당연, 배우자 결손, 자녀의 권유, 부모 또는 자녀의 경제력 약화, 세대간의 상호부조 등으로 나타난다.²⁾

노인에게 주거가 안정되면 영역성의 확보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활동력이 저하되어 자연히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길어지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

노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부양에 이상적인 가족형태라 여겨지는 3세대 동거 가족형에서 나타나는 갈등 원인의 하나인 주거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3대 동거 주택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진다는 기본 전제하에 세대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선가정' '후사회'의 기본 개념에 부합되는 동시에 가족의 구조와 문제의 예방과 치료 측면으로 강화되어야 할 가족복지정책과도 일치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³⁾

이와 같이 현대의 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으로 핵가족의 단점을 보완하고, 확대가족의 장점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한집에 함께 거주하는 과거의 '동거'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평면형태와 거주유형의 제공을 통하여 실현시킬 수 있다.⁴⁾

3세대 가족형의 형성은 핵가족화의 경향을 띤 젊은 세대가 세대를 초월하여 적절한 생활의 분리나 공동화를 실현하고,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정신적인 근거를 조절하면서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에 바탕을 두고 동거하게 된다. 함께 거주하더라도 옛날 확대가족 형태와 같은 동거와는 달리 세대간 개별적 생활의 중시, 장남 이외 자녀 세대와의 동거, 가사 등에 있어서는 고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핵가족의 형태를 지니면서도 상호 절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동거의 생활형태도 다양하다.⁵⁾

이전에는 자녀부와 동거하는 부모세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들이 있더라도 굳이 딸부와 동거를 바라는 부모세대가 증가하는 등 3세대 동거 방식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자녀수의 부모수에 대한 비율이 점차 낮아질 것이므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결국 3세대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⁶⁾

3세대 동거 가족은 차세대에의 거주계승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에의 담당자가 되는 정주층이다.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 거주하는 거주자의 동향이 지역사회의 안정이나 시가지정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⁷⁾

세대간 주거욕구에 대해서는 동거주택의 형태로 동일 주택내에서의 분리형태보다 절충형(세대간 개인실과 생리위생공간의 분리, 공동생활공간은 공용)을 선호한다. 그러나 근거리 별거에 대한 희망도 비교적 높으므로 동일 주택내에 거주하면서 세대간 거주분리가 고려된 주택계획이 요구된다.⁸⁾

가구 구성 중에서 목포시의 3세대가구(양친+부부+자녀, 편친+부부+자녀, 기타)의 구성비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8.6%에 이르고 있다.

III. 調査對象者의 特性과 同居實態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특성

① 조사대상자의 성별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60세 이상의 남녀로 하였는데, 응답자는 남자 49.0%, 여자 51.0%로 거의 비슷하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응답자 151명)

구분	내 용	N	%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별	남자	74	49.0
		여자	77	51.0
	연령	60~69세	87	57.6
		70~79세	49	32.5
		80세 이상	15	9.9
	직업	근로자	7	4.6
		회사임원	3	2.0
		자영업	4	2.6
		가족종업원	10	6.6
		부업·시간제부업	3	2.0
농·임·어·축산업		46	30.5	
기타		70	46.4	
건강상태	건강	24	15.9	
	보통	44	29.1	
	질병(약함)	77	51.0	
	오래 누워있다.	6	4.0	
가족의 특성	동거자녀직업	근로자	53	35.1
		회사임원	12	7.9
		자영업	42	27.8
		가족종업원	3	2.0
		부업·파트	10	6.6
		농·임·어·축산업	25	16.6
	동거기간	기타	6	4.0
		10년 미만	46	30.5
주택종류	20년 미만	87	57.6	
	20년 이상	18	11.9	
	주택종류	단독주택	79	52.3
		아파트	69	45.7
		기타	3	2.0
주택소유형태	당신 부부가 구입	71	47.0	
	자녀가 구입	28	18.5	
	당신 부부와 자녀세대가 공동 구입	13	8.6	
	상속, 증여	24	15.9	
	기타	2	1.3	

② 배우자와의 동거상황

응답자의 38.4% 부부가 건재하며 동거하고 있었고, 남편만 또는 아내만은 61.6%이었다. 남성이 부부건재, 즉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3.5%인데 비하여 여성은 76.2%의 경우가 배우자 결손이었다.

③ 조사대상자의 연령

응답자를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초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으로 하고, 응답자의 연령구성을 보면, 초기노인 57.6%, 중기노인 32.5%, 후기노인 9.9%이었다. 이후의 분석에서 연령은 이 3유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사대상자의 직업

응답자의 직업에 대하여 부업이나 시간제노동까지를 포함하여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그 결과 종사자수 합계는 53.6%에 이르고 있었다.

응답자가 6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직은 46.4%이어서 2사람에 한 사람 정도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농축산업·임업·수산업 30.5%가 주된 것이며, 나머지 가족종업원 6.6%, 근로자 4.6%, 자영업 2.6%, 회사임원 및 부업·시간제부업은 각각 2.0% 등으로 상당히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무직의 비율이 83.7%로 높았다.

⑤ 조사대상자의 건강

응답자의 건강상태에서 「질병(약함)」이 51.0%로 가장 많았고, 「보통」 29.1%, 「건강」 15.9%, 「오래 누워있다」 4.0%로 나타났는데 45.0%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건강상태는 나이와 상관성이 있어 응답자의 경우에도 70세를 경계로 「건강」의 비율이 약 15% 감소하고, 반대로 「오래 누워있다」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가족의 특성

① 가족수

가족당 인원은 평균 5.2인이었다. 목포시의 1

세대당 가족수는 3.42인(1995년 목포시 인구통계보고서)인데, 대상 3세대 가족은 시 평균 가족수보다 상당히 높았다.

② 동거 자녀와의 관계

동거 자녀는 아들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장남, 차남, 3남 이하의 아들 중의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는 「아들동거형」이 92.1%이었다. 아들은 장남이 64.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차·삼남과의 동거 36.0%, 장녀와의 동거 2.6%, 차·삼녀 5.3%이었다.

③ 자녀의 배우자형태

동거하고 있는 자녀는 81.5%의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이며, 미혼인 경우는 18.5%이었다.

④ 동거 자녀의 직업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직업은 근로자 35.1%, 자영업 27.8%, 농림축수산업 16.6%, 회사임원 7.9%, 부업·시간제부업 6.6%이었다.

⑤ 가족 소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42만원인데, 근로자 가족의 가구당 전국 월평균 총소득 407만원(1997년도)보다는 적었다.

⑥ 동거기간

부모와 자녀부부의 동거기간은 10년 미만인 30.5%, 20년 미만 57.6%, 20년 이상 11.9%이었으며, 동거평균기간은 11.2년이었다.

⑦ 별거하는 자녀수

별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62.3%이었고, 별거 자녀가 있는 경우 별거 자녀의 평균인수는 2.5인이었다.

⑧ 형제 유무

부모의 형제 유무를 밝혔다. 배우자의 형제도 포함하여 형제가 없는 경우는 8.6%이며, 형제의 평균인수는 2.5인이었다.

(3) 주택의 특성

① 주택의 자가율

주택의 자가율은 91.3%인데, 목포시의 자가율 71.3% (1995년 목포시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하면 3세대가족의 자가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②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52.3%로 가장 많고, 아파트의 경우는 45.7%로 나타났다.

③ 주택의 규모

주택의 연면적은 32.2평으로 이는 목포시 전체의 주택중 3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9~29평(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④ 방의 수

거실, 침실, 응접실, 식사실, 예비실 등을 합산한 평균 방의 수는 6.2개이며, 목포시 평균 가구당 사용방수 3.1(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개보다 약 3개가 더 많았다.

⑤ 주택의 취득형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당신 부부가 구입」이 47.0%, 「자녀가 구입」이 18.5%, 「상속, 증여」가 15.9%, 「당신 부부와 자녀가 공동 구입」이 8.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상가족은 부모의 자가에 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것이 주류임을 알 수 있었다.

2. 동거의 경위와 이유

(1) 동거의 경위

자녀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151세대 가운데 동거의 경위에서 「계속 동거형」, 「일시 별거후 동거형」의 차이를 보면, 「계속 동거형」 72.2%, 「일시 별거후 동거형」 24.5%로 「계속 동거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

「일시 별거후 동거형」가운데 부모와 자녀주거 중의 어느 곳에 동거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부모의 집에 자녀가 동거하는 「자녀동거형」(15.2%), 자녀의 집에 부모가 동거하는 「부모동거형」(9.3%)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끌리어 동거하는 경우는 훨씬 적었다.

또한 「계속 동거형」 「자녀동거형」 「부모동거형」에 대하여 동거자의 혈족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2. 3세대 가족의 동거실태

(전체응답자 151명)

구분	내 용	N	%
동거경위	계속 동거	109	72.2
	일시 별거후 당신 부부의 집에 동거	23	15.2
	일시 별거후 자녀의 집에 동거	14	9.3
	기 타	5	3.3
경위와 이유	부부(또는 1인)만으로는 적적하여	16	10.7
	주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11	7.2
	경제적이어서	7	4.6
	집이나 가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5	3.3
	자녀가 희망해서	5	3.3
	동거가 자연스러워서	73	48.3
	부모와 자식의 애정에서	32	21.3
기 타	2	1.3	
생활의	자녀세대와 공동으로 회계한다	103	68.2
	자녀세대와 일부는 별도로 회계한다	36	23.8
	자녀세대와 모두 별도로 회계한다	8	5.3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4	2.6
공동과 분리	대체로 함께	117	77.5
	가끔 함께	17	11.3
	대체로 별도로	7	4.6
	전혀 별도로	5	3.3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5	3.3
주택변경	이주하였다	58	38.4
	개축, 수선하였다	36	23.8
	증축해서 방을 늘렸다	16	10.6
	거의 변경은 없다	41	27.2
침실	당신 부부 전용의 침실이 있다	131	86.8
	특별히 전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	13.2
주거의 현상	당신부부나 자녀세대의 전용침실이 없다	20	13.2
	손자의 방을 함께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4	58.6
	손님을 접대할 방이 없다	21	36.2
곤란한 점	손님이 묵을 방이 없다	15	25.9
	가족 단란의 방이 없다	16	27.6
	가사를 돌보기 어렵다	27	46.6
점	욕실이나 화장실이 사용하기 어렵다	31	53.4
	주택 안의 오르내림이 심하다	28	48.3

먼저 「계속 동거형」에 대해서는, 「아들동거형」(82%), 「딸동거형」(18%)이었다. 「자녀동거형」에서는 「아들동거형」(85%), 「딸동거형」(15

%)가 되어 아들동거형의 경향이 강하였다.

(2) 동거의 이유

동거의 이유는 제1위가 「동거가 자연스러워서」 48.3%, 제2위가 「부모와 자식의 애정에서」 21.3%이었고, 이 양자에서 69.6%가 되었다. 아직 동거를 당연시하는 경향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부부만으로는 적적하여」 10.7%, 「주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7.2%, 「경제적이어서」 4.6%의 순이었다.

3. 생활의 공동과 분리

(1) 가계운영의 공동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면, 「전부공동」 68.2%, 다음에 「일부공동」 23.8%, 「전부별도」 5.3%,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2.6%이었다. 「전부공동」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일부공동」이 약 1/3을 차지하였고, 또한 「전부 별도」도 5.3%인 것은 가계에 관해서는, 「동거자녀와의 농밀접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저녁식사의 공동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기회 빈도를 5단계로 밝혀보면, 「대체로 함께」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계운영에서 약 30%의 분리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식사에 관해서는 아직 그 공동 정도는 높았다.

(3) TV와 단란

가족의 단란 모습을 알기 위하여 「TV를 자녀세대와 시청하는 기회가 어느 정도인가」와 「TV를 시청하는 방은 어디인가」의 2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TV를 시청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침실, 거실, 응접실, 식사실, 기타의 5가지에서 복수응답을 요구하였다.

먼저 TV를 시청하는 방은 주로 거실(75.2%)이

나 침실(48.5%)로 나타났고, 가족의 공동공간에서 시청하는 기회가 아직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 TV를 자녀세대와 함께 시청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함께」(42.7%), 「가끔 함께」(28.9%), 「대체로 별도로」(21.3%), 「전혀 별도로」(5.6%)로 나타났다.

이제 TV는 한 집에 한 대의 시대에서, 복수대의 시대에 들어가 그 결과 TV 시청의 개인화가 촉진되고 있다. 노인의 여가에 차지하는 TV의 비율은 크다.

(4) 가사의 공동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 별도로 하는 가사는, 1위 세탁(65.3%), 2위 청소(61.6%), 3위 구매(42.5%), 4위 식사의 설거지(20.1%), 5위 식사준비(15.2%), 6위 취사(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분리와 가사의 분리는 정비례하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세탁과 청소는 가계 운영방식의 여하에 의하지 않고, 세대마다 각자 이루어지는 것 같다.

4. 주거의 현상

(1) 동거후 주택의 형태변경

2세대 동거시 또는 3세대 가족의 형성과정에서 주거의 유지관리에 있어 손질할 필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자녀부부와 동거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의 변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4가지의 선택 문항에서 복수응답의 형태로 응답을 구하였다.

먼저 「변경은 없다」고 하는 경우는 27.2%이며, 나머지 72.8%는 무엇인가의 형태로 주택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변경내용은 이주하였다(38.4%), 개축·수선하였다(23.8%)이며, 증축하였다는 10.6%로 적었다.

(2) 현관, 거실의 전용과 공용

현관, 거실, 침실, 부엌, 식사실, 화장실, 욕실이 현재의 주택에 몇 개소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평균숫자는 현관 1.6, 거실 1.5, 침실 3.6, 부엌

1.1, 식사실 1.1, 화장실 1.8, 욕실 1.1이었다.

부엌, 식사실, 욕실은 한 채에 평균 1.1개소로 분포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 등 3세대의 공동이용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현관은 1개소만이 72.6%, 2개소 이상인 경우는 20.1%이었으며, 현관은 세대간의 전용화가 가능하고 있었다. 거실은 1개소만이 58.3%, 2개소 이상이 32.2%로 현관 보다 각 세대 전용화의 가능성이 높았다. 거실이 세대의 전용도가 높은 것은 곧 단란기회가 감소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침실은 평균 3.6개소로 각 세대 1침실은 일단 준비되어 있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세대간의 전용화 측면과 다인수 사용에의 대응의 두 측면에서 설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3) 노인실의 전용화와 공용

① 침 실

전용 침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6.8%로 대부분이 전용 침실을 가지고 있었다.

전용 침실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동거의 경위별로 보면, 「자녀가 도중에 동거」(89.2%), 「계속 동거형」(85.8%), 「부모 동거형」(72.5%)이었다. 「자녀가 도중에 동거」인 경우가 「계속 동거형」보다 노인의 침실 전용화가 높은 것은 부모의 세력이 강하고, 부모의 종래 거주패턴의 고정화가 우선되는 결과로 보였다.

전용실이 확보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주택의 규모에 대응하고, 50평 이상의 주택에서 전용 침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5%에 이르지만, 50평 이하의 주택에서는 70%대에 머물고 있었다.

② 기타의 전용실

침실 이외에 전용 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8.9%이었다. 침실 이외에 전용실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일시 별거후 자녀가 부모의 집에 동거하였다」 경우가 높고(42.3%), 「계속 동거하고 있다」(32.7%), 「부모가 자녀의 집에 동거하였다」(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거의 경위는 노인 전용실의 확보와 관련이 크고, 특히 자녀가 부모의 집에 도중

동거하는 경우에 부모의 전용실 확보는 높았다.

(4) 주택에서 곤란한 점

현재의 주거에 대하여 약 38.6%의 응답자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복수로 선택한 것인데,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손자의 방을 함께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58.5%)이었다. 주택취득이 부모세대의 구입, 증여의 경우에는, 「손자의 방이 함께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의 경우가 많고, 자녀부부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먼저 자녀방 확보가 우선되는 것 같았다.

이어서 접객하는 방이 없는 점이 문제되고 있었다. 3세대 가족에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귀성하는 것도 당연시되고, 주택은 동거자들의 공간일 뿐 아니라 출타한 사람에게도 「휴」인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3세대 가족은 이러한 출타한 사람을 포함한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에의 요망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에서 곤란한 점의 8가지 선택문항 가운데, 「가족 단란」을 위한 방의 요망은 가장 적었다. 이것은 식사실을 거실과 겸용하는 등에 의해 거실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고령자에 의하여 「주택 안의 오르내림이 심하다」는 점은 가정내에서의 부상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IV. 3세대 가족의同居觀

1. 동거의 장점

동거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6가지의 선택문항에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장점의 첫째는, 「서로 도울 수 있다」(53.6%), 「정신적으로 안심감이 있다」(51.0%)가 먼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지되고, 다음에, 「활기 차며 즐겁다」(39.7%), 「가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28.5%),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상담할 상대가 있다」(13.2%) 등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3세대 가족의 동거관

(복수응답)

구분	내 용	N	%
동거의 장점	서로 도울 수 있다	162	53.6
	활기차며 즐겁다	20	39.7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상담할 상대가 있다	20	13.2
동거의 문제점	정신적으로 안심감이 있다	26	51.0
	가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14	28.5
동거의 문제점	기 타	2	3.3
	세대 사이에서 생활시간대에 어긋남이 있다	108	35.8
	세대 사이에서 취미·흥미가 다르다	85	28.1
	부모와 자녀내외가 손자의 교육, 예의범절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일어나기 쉽다	66	21.9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10	3.3
	친구, 지인들을 집에 초대하기 어렵다	23	7.6
	자녀와 떨어지고, 부모와 떨어지기 어렵다	30	9.9
	기 타	12	4.0
	특별한 점이 없다	95	31.5
	주생활방식	모든 생활은 별도로 한다	4
생활은 별도로 하지만, 단란, 식사는 함께 한다		26	17.2
생활은 함께 하지만, 단란, 식사는 별도로 한다		23	15.2
모든 생활은 함께 한다		92	60.9
기 타		6	4.0
동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거주방식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현관을 분리한다	6	15.4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응접실을 분리한다	9	23.1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거실을 분리한다	19	48.7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침실을 분리한다	14	35.9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식사실을 분리한다	4	10.3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부엌을 분리한다	3	7.7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욕실을 분리한다	3	7.7
	당신부부와 자녀들의 화장실을 분리한다	12	30.8
동거의향	동거를 계속하고 싶다	106	70.2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별거할지도 모른다	18	11.9
	별거하고 싶다	14	9.3
거주의향	모르겠다	13	8.6
	계속 살고 싶다	37	24.5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주할지도 모른다	102	67.5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12	8.0	

이 결과에서 부모세대는 3세대 동거의 경우 경제적 기능이나 실리적 측면보다 자녀세대와의 정신적, 정서적 관계 유지를 장점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거의 장점을, ① 성별, ② 동거 자녀의 혈족 관계별로 알아보았다.

(1) 성 별

「활기차며 즐겁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상담할 상대가 있다」, 「정신적으로 안심감이 있다」는 여성의 지지 비율이 높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 「가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남성의 지지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남성에 의한 3세대 동거는 호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여성은 오히려 자녀세대와의 의존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 연령별

노인의 연령별로 보면, 「활기차며 즐겁다」는 연령이 젊은 사람에게 지지가 높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 「정신적으로 안심감이 있다」는 중기, 후기노인에 의한 지지가 높았다.

(3) 동거 자녀의 혈족관계별

동거 자녀의 혈족관계에서는, 「서로 도울 수 있다」, 「정신적으로 안심감이 있다」는 딸 동거형에서 지지율이 높고, 「활기차며 즐겁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상담할 상대가 있다」, 「가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아들 동거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딸과의 동거자쪽이 동거를 호혜적이며 수단적 기능보다 정서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보였다.

2. 동거의 문제점

동거의 문제점을 8개 문항에서 2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동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68.5%로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거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세대 사이에서 생활시간대의 어긋남이 있다」(35.8%)이었다. 다음에 「세대 사이에서 취미, 흥미가 다르다」(28.1%), 「부모와 자녀 내외가 손자의 교육, 예의범절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일어나기 쉽다」(21.9%), 「자녀와 떨어지고, 부모와 떨어지기 어렵다」(9.9%), 「친구, 지인들을 집에 초대하기 어렵다」(7.6%),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3.3%)의 순이었다.

3. 동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거주방식

(1) 주생활방식

3세대 동거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아울러 지닌 생활형태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검토하여 보았다.

동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주생활방식을 보면, 「모든 생활은 함께 한다」(60.9%)가 다른 어느 선택항목보다 높았다. 「생활은 별도로 하지만 단란, 식사는 함께 한다」와 「모든 생활은 함께한다」를 합하면 78.1%가 되었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동거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였다.

(2) 주택의 개선

동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택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하여 복수 응답을 요구하였다. 151명 중에서 25.8%에 해당하는 39명이 주택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개선점을 들었다.

개선내용으로는, 세대 사이에서 「거실을 분리한다」(48.7%), 「침실을 분리한다」(35.9%), 「화장실을 분리한다」(30.8%), 「응접실을 분리한다」(23.1%), 「현관을 분리한다」(15.4%), 이어서 식사실(10.3%), 욕실 및 부엌을 각각(7.7%) 분리 희망하고 있었다.

거실은 1가정에 2개소 이상 있는 경우가 약 32%이었는데, 여기서도 비교적 높은 개선희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실의 분리 경향은

부모세대 중에서도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응접실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별거의 자녀, 형제자매, 친구지인과의 교체에 따른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응접실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현상에서 응접실의 분리라기 보다 응접실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4. 동거의 계속 의향

동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주생활방식으로 「모든 생활을 별도로 한다」라는 분거로도 보이는 동거형태의 지지가 소수이었지만, 이러한 분거에 가까운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도 동거를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체에서 보면, 별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경우는 21.2%이며, 「동거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70.2%이었다.

이어서 현재 주택에 계속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약 2/3의 67.5%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주할지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V. 結論 및 提言

고령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3세대 가족의 거주방식 실태와 이에 대한 고령자의 의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 론

(1) 3세대 가족의 개황

본 조사의 대상자는 목포시에서 추출된 60세 이상의 151명의 남녀이었다. 응답자는 남자 49.0%, 여자 51.0%로 거의 비슷하였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약 60%, 또한 약 50%가 무엇인가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여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23.8%에 지나지 않고, 무직의 비율이 83.7%로 매우 높았다. 이상의 점에서 같은 3세대 가족이더라도 남성의 경우는 완전 3세대 가족인 경우

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는 남편을 결혼한 상태에서 동거생활이 많고, 여기에서 나타난 동거관은 그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였다.

(2) 동거의 실태

자녀부부와 동거한 경우는 자녀부부의 결혼과 동시에 현재까지 「계속 동거」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는 「동거가 자연스러워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애정에서」로 모정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생활의 모습은 식사의 공동정도는 높았으나, 가계, 단란 등은 분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가사, 청소, 세탁 등 자기의 주변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대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동거자녀와의 농밀접촉」에 변화가 약간 보였다.

3세대 동거에 따른 주택의 개축·개선은 많았고, 특히 현관·거실은 복수로 되어 있었으며, 세대 사이의 분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전용 침실이 없는 노인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침실 이외에 자기 전용의 방을 가진 노인이 40% 정도이었다. 일반적으로 넓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손자의 방 확보가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

(3) 3세대 가족의 동거관

동거의 장점으로 「도울 수 있다」, 「정신적으로 안심」, 「활기차며 즐겁다」 등 정서적 측면이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 70%의 사람이 동거에 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대 사이의 「생활시간의 어긋남」이나 「흥미의 다름」 등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동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주생활방식으로는 역시 「모든 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지지되고 있었다. 생활분리가 일부있더라도 식사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견이 80%이었다.

동거에 따른 주택의 검토에 대하여 현재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가 1/4이었다. 여기서는 「거실

을 분리한다」와 아울러 「침실을 분리한다」가 높게 요구되고 있었는데, 「거실」은 자유스러운 단란을 위해서이고, 「침실」은 자녀의 출생과 성장에 따른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동거의 계속 의향을 보면, 70%의 사람이 동거에 무엇인가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반면, 70%의 사람이 동거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었다.

2. 3세대 가족의 앞으로의 과제

3세대 동거는 세대 차이에 따른 가치관의 다름으로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이나 긴장을 수반하고,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는 현재 그 해소, 조절은 매우 큰 곤란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다른 세대와의 공존은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소가족이 가지지 못한 인간관계를 제공한다.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의 3세대 동거가족의 공동식사 정도는 높은데, 가족 본래의 「단란」을 공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거실의 세대 전용화는 세대 사이의 단란을 지금 이상으로 감소시킬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동거 가족에서 생활분리의 진전은 시대의 추세상 적절한 거리를 가진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3세대가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동거에서 요구되는 것은, 「만나는 공간」을 어떻게 창출하는가이다. 거실 분리가 아니라 생활의 분리화 경향을 보완하는 공동생활을 연출하기 위하여 거실을 어떻게 공유화할 것인가의 검토가 동거의 장점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를 유지하는 책임에 노인 자조 노력은 당연하지만, 가족의 책임, 사회의 책임도 있다. 노인 동거를 가족의 책임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조건정비를 위한 공적 지원이 재택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면 정서적 만족도가 높고,

문화교육기능이 뛰어난 3세대 동거가족은 앞으로 유력한 한국적 거주형태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3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평면유형의 주택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는 노인주거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적 측면과도 깊은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

주

-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개발보급 방안연구, p.410, 1991.9.
- 2) 金鼎鎭外, 三世代 同居住戶의 空間計劃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10권제2호, p.58, 1994.2.
-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p.46, 1991.9.
- 4) 이연숙편,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경춘사, p.50, 1993.
- 5) 林晚澤, 주거환경계획, 기문당, p.92, 1998.
- 6) 미래의 가족구조 변화 가운데 3세대가구가 증가하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3세대가족형 공동주택 시범개발을 위한 토론회」(결과보고서), 1986.9. p.84 참조.
- 7) 松本暢子外, 都心居住高齢者とその家族の居住繼承に關する研究, 都市計劃論文集, No.30, 日本都市計劃學會, pp.73-78, 1995.
- 8) 崔貞信外, 3代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와 選擇,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7권제1호, p.41, 1991.2.

參考文獻

1. 金鼎鎭外, 三世代 同居住戶의 空間計劃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10권제2호, 57-63, 1994.2.
2.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3세대가족형 공동주택 시범개발을 위한 토론회」(결과보고서), 1986.9.
3. 대한주택공사, 3대가족형 공동주택개발연구, 1987.
4. 목포통계연보, 목포시, 1998.
5.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1997.
6. 이연숙외, 삼대가족의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8권 제6호, 29-38, 1992.6.
7. 이연숙편,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경춘사, 1993.
8. 林晚澤, 주거환경계획, 技文堂, 1998.
9. 崔貞信外, 3代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와 選擇,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7권제1호, 31-43, 1991.2.
10. 한국노인문제연구소편, 고령화사회의 노인주택 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경춘사, 1993.
11.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개발보급 방안연구, 1991.9.
12. 松本暢子外, 都心居住高齢者とその家族の居住繼承に關する研究, 都市計劃論文集, No.30, 日本都市計劃學會, 73-78, 1995.